



### 한국의 종교 1984-2014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제5차 비교조사 보고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2015년 펴냄

ISBN 978-89-93516-11-1 93200 | B5 | 257쪽 | 30,000원

\*본 자료의 내용은 위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 (2) 종교 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인식

-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변화
- 종교 단체
  - 종교 본래의 뜻 상실
  - 참진리 추구보다 교세 확장에 관심
  - 헌납금 강요
- 종교 기관의 사적 상속
- 성직자의 품위와 자격
- 종교적 덕목의 실천
  - 일반인 평가
  - 종교인 평가

#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변화

2014년 4월 17일~5월 2일(3주간) •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 면접조사 • 표본오차 ±2.5%포인트(95% 신뢰수준) • 2단계 층화 집락 지역 무작위 추출-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

문) 과거에 비해 요즘 우리 사회에서의 종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감소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 표 13)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증가하고 있다	68	70	59	54	47
감소하고 있다	11	8	17	15	19
비슷하다	7	9	22	32	34
모름/응답거절	14	14	1	-	-

◎ 종교별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변화 평가: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불교인	66	69	54	54	50
개신교인	84	81	64	55	59
천주교인	77	80	67	68	48
비종교인	63	66	58	52	40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pp.91-92. 한국갤럽

문) 요즘 종교 단체들에 대한 다음의 말들에 대해 얼마나 그렇다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대부분의 종교 단체는 종교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다 (% , 표 26-2)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매우 그렇다	18	15	13	15	13
어느 정도 그렇다	(67) 49	(63) 48	(72) 59	(68) 53	(63) 50
별로 그렇지 않다	11	14	15	21	29
전혀 그렇지 않다	9	9	-	5	4
모르겠다	14	13	13	7	4

◎ 종교별 '종교 단체가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다: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불교인	61	62	73	69	62
개신교인	67	60	63	59	52
천주교인	54	57	73	59	54
비종교인	69	66	76	73	71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p.98. 한국갤럽

문) 요즘 종교 단체들에 대한 다음의 말들에 대해 얼마나 그렇다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대부분의 종교 단체는 참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교세 확장에 더 관심이 있다 (% , 표 26-3)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매우 그렇다	31	31	25	29	23
어느 정도 그렇다	(74) 43	(76) 45	(80) 55	(77) 48	(68) 45
별로 그렇지 않다	9	8	10	15	24
전혀 그렇지 않다	5	5	-	3	4
모르겠다	12	10	10	6	4

◎ '종교 단체는 참진리보다 교세 확장에 더 관심이 있다: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불교인	73	76	76	78	67
개신교인	71	68	65	64	53
천주교인	62	70	80	75	62
비종교인	76	81	87	81	76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p.100. 한국갤럽

문) 요즘 종교 단체들에 대한 다음의 말들에 대해 얼마나 그렇다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요즘 종교 단체는 시주/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 표 26-7)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매우 그렇다	31	32	20	19	16
어느 정도 그렇다	(66) 35	(69) 37	(69) 49	(63) 44	(65) 49
별로 그렇지 않다	11	10	16	20	27
전혀 그렇지 않다	9	9	-	7	4
모르겠다	15	13	16	9	5

◎ '종교 단체는 헌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불교인	64	66	70	64	63
개신교인	67	59	57	48	46
천주교인	58	62	63	65	59
비종교인	67	74	72	71	73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pp.106-107. 한국갤럽

문) 요즘 우리 사회에서 성당, 교회, 절 등의 종교 기관을 사적으로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 기관이 사적 상속을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 , 표 20)

	2004년	2014년
해도 된다	10	13
해서는 안 된다	90	87

◎ 종교별 종교 기관의 사적 상속에 대한 태도: '해서는 안 된다' (%)

	2004년	2014년
불교인	90	88
개신교인	91	81
천주교인	91	89
비종교인	89	89

\*이 내용은 4차 조사(2004년)부터 질문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p.105. 한국갤럽

문) 귀하는 요즘 우리 주변에 품위가 없거나 자격이 없는 성직자가 얼마나 많다고,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 24)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매우 많다	16	22	16	25	22
어느 정도 있다	(65) 49	(71) 49	(79) 63	(87) 62	(87) 65
별로 없다	15	12	16	12	12
전혀 없다	2	2	1	1	1
모름/응답거절	18	16	3	0	-

◎ 종교별 '품위나 자격이 없는 성직자가 '매우 많다+어느 정도 있다' (%)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불교인	66	71	80	88	88
개신교인	64	71	72	83	85
천주교인	60	64	69	79	89
비종교인	66	71	84	88	87

\*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pp.95-96. 한국갤럽

문) 흔히 '이웃과 타인을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데요,

- 귀하께서 보시기에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럼, 종교를 믿는 사람들(신자)은 이 말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18-1, 2)

	일반인 평가					종교인 평가				
	'84	'89	'97	'04	'14	'84	'89	'97	'04	'14
매우 잘 지키고 있다	4	3	1	3	1	14	8	4	8	3
어느 정도 지키는 편이다	(56)52(35)32(29)28(47)44(34)33	(67)53(53)45(44)40(56)48(45)42								
별로 지키지 않는 편이다	32	40	49	45	57	20	29	38	38	49
전혀 지키지 않는다	7	22	15	8	9	5	13	11	6	6
모르겠다	5	3	7	0	-	9	5	7	0	-

◎ 일반인과 종교인의 사랑과 자비 실천 정도: '매우 잘+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 (%)

	일반인 평가					종교인 평가				
	'84	'89	'97	'04	'14	'84	'89	'97	'04	'14
불교인	59	40	33	50	32	74	55	48	57	41
개신교인	53	34	30	47	47	81	66	64	74	74
천주교인	57	34	27	54	39	84	69	58	63	60
비종교인	59	33	28	45	29	59	45	35	46	33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pp.94-95. 한국갤럽



# 응답자 특성표

주요 분석 단위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 기준)와 성/연령/성\*연령/직업/지역별 분포입니다. 2014년 3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8개 권역/성/연령별 가중 처리 결과.

응답자 특성표 2014년 4월 17일~5월 2일		전체		불교인		개신교인		천주교인		비종교인	
		사례수 (명)	비율	사례수 (명)	비율	사례수 (명)	비율	사례수 (명)	비율	사례수 (명)	비율
<b>전체</b>		1,500	100%	334	100%	318	100%	98	100%	746	100%
<b>성별</b>	남성	743	50%	150	45%	134	42%	39	40%	419	56%
	여성	757	50%	184	55%	184	58%	59	60%	328	44%
<b>연령별</b>	19-29세	266	18%	27	8%	48	15%	7	7%	184	25%
	30대	291	19%	32	10%	57	18%	19	20%	182	24%
	40대	326	22%	67	20%	66	21%	31	32%	161	22%
	50대	295	20%	94	28%	68	21%	16	16%	117	16%
	60세 이상	322	21%	114	34%	79	25%	25	26%	103	14%
<b>성/연령별</b>	남성 19-29세	140	9%	13	4%	22	7%	4	5%	100	13%
	남성 30대	148	10%	17	5%	27	8%	8	8%	97	13%
	남성 40대	166	11%	32	10%	33	10%	10	11%	89	12%
	남성 50대	149	10%	45	14%	25	8%	5	5%	72	10%
	남성 60세 이상	141	9%	42	13%	27	9%	11	12%	60	8%
	여성 19-29세	126	8%	14	4%	26	8%	3	3%	83	11%
	여성 30대	142	9%	15	4%	30	10%	11	12%	85	11%
	여성 40대	160	11%	35	11%	33	10%	20	21%	71	10%
	여성 50대	147	10%	49	15%	43	13%	10	11%	45	6%
	여성 60세 이상	181	12%	71	21%	52	16%	14	14%	43	6%
<b>혼인상태별</b>	미혼	336	22%	37	11%	61	19%	16	17%	221	30%
	기혼/이혼/사별	1,164	78%	297	89%	257	81%	81	83%	526	70%
<b>지역별</b>	서울	309	21%	43	13%	73	23%	24	24%	168	22%
	인천/경기	440	29%	78	23%	119	37%	31	31%	213	29%
	강원	46	3%	8	2%	9	3%	3	3%	25	3%
	대전/세종/충청	155	10%	31	9%	27	9%	15	15%	82	11%
	광주/전라	154	10%	22	7%	48	15%	9	9%	74	10%
	대구/경북	156	10%	50	15%	20	6%	14	14%	71	9%
	부산/울산/경남	239	16%	101	30%	21	7%	2	2%	114	15%
<b>이념성향별</b>	보수적	478	32%	145	44%	101	32%	30	31%	201	27%
	중도적	709	47%	142	42%	164	52%	46	47%	355	48%
	진보적	313	21%	47	14%	52	17%	22	23%	190	25%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한국갤럽은 1974년 6월 박무익 회장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인 형태 조사 전문 회사입니다.

1980년대부터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우리 국민의 기아가 한국갤럽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2012년부터 조사의 중립성, 지속성, 대표성을 확보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분이든 누구나, 무료로, 매주 금요일, 한국갤럽 홈페이지 [www.gallup.co.kr](http://www.gallup.co.kr) 에서 새로운 결과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중립성: 정치권, 이해 관계자, 특정 언론의 의뢰가 아닌, 한국갤럽이 자체 기획, 운영, 공개합니다.
- 지속성: 특정 이벤트, 특정 시기, 단 하루의 조사 표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매주 추적 조사합니다.
- 대표성: 전국 유권자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무선 RDD 표본 프레임을 이용합니다.

무작위로 생성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한국갤럽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 매일 300명, 매주 1,000명 이상 유효표본을 확보합니다.

매일 수집한 데이터는 지역, 성, 연령 특성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사후 가중처리합니다.

- 하루 데이터는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림(Rim) 가중
- 일일(Daily) 지표는 당일과 직전 이틀 데이터를 3일 이동 평균(3-day-rolling average)
- 주간(weekly) 지표는 월~목 데이터를 통합해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셀(cell) 가중

한국갤럽 조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한국갤럽의 자산이므로 상업적 용도의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문의: 한국갤럽 02-3702-2100(대포)/2571/2621/2622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Q&A